


무한매수법과 밸류리밸런싱 두가지를 모두 하는 이유

댓글 1,620



라오어 카페매니저 

2021.05.30. 18:13 조회 4.3만

1:1 채팅

처음에 카페에 들어오시는 경우 "무한매수법" 또는 "밸류리밸런싱" 둘중에 한가지 방법을 먼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소개를 받거나 책을 보고 오신분은 무한매수법 이 익숙하고,

구독 중

유튜브를 보고 오신분은 밸류리밸런싱 이 익숙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의 결정적 차이는

무한매수법은 단투이며 코스트에버리징 기반입니다

밸류리밸런싱은 장투이며 밸류에버리징 기반입니다

방법론도 다르고 기본개념 출발점도 다른,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장투와 단타를 같이 해야함"** 을 강조드려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투는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원치 않는 타이밍에 종료를 해야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건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때 장투는 언제 매도를 해야할지 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단투는 급작스러운 시기 이전까지 이미 수익실현한 자금들이 있으며, 무한매수법은 1~2달 전부터 서서히 줄이면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종료를 해도 장투만큼 결과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장투만큼 복리의 장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투는 횡보장에 수익이 없지만, 무한매수법은 수익이 생깁니다. 여기서 오는 소외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매수법을 하지않고 장투만 하면 되지 않느냐?" 는 질문은, 장투와 단투의 장단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장투와 단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장투는 사이버머니일 뿐이며, 실현하기 전까지는 내돈이 아닙니다. 단투는 단투만의 특징이 있고 장투는 장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는 수익률이 전부가 아니며, 중간과정이 다른 투자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멘탈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훨씬 유리합니다.

오랜동안 주식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무한매수법이나 밸류리밸런싱이 아니더라도

장투와 단투를 되도록 같이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주식만 채권으로 헷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투와 단투 또한 서로의 장단점을 희석시키며
헷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